

《朴通事新註新譯(七)》^{*}

李 陸 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六)>¹⁾의 후속 작업으로, 제47단락부터 제55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47話 請將范太醫來看

我今日腦疼頭旋²⁾, 身顫³⁾의當不的⁴⁾. 請將范太醫⁵⁾來看⁶⁾. 太醫來這裏. 請的⁷⁾屋裏來. 好相公⁸⁾坐的⁹⁾. 小人虛汗只¹⁰⁾是¹¹⁾流水一般, 奪¹²⁾腦疼的一宿不

* 이 연구는 2014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中國學論叢 第32輯(2011年), 第33輯(2011年), 第34輯(2012年), 第36輯(2012年), 第39輯(2013年), 第41輯(2013年).

2) 頭旋: 頭暈.

3) 顫: 顫抖, 發抖.

4) 當不的: 受不了, 禁不住.

5) 太醫: 古代宮廷中掌管醫藥的官員. 宋元以後用爲對一般醫生的敬稱.

6) 看: 診視. 醫. 《紅樓夢》第七回: 「後來還虧了一個禿頭和尚, 說專治無名之症, 因請他看了。」(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028.)

7) 的: 到. 也作“得”. 脉古《魯齋郎》一 魯齋郎白: 「把你媳婦明日送的我宅子裏來。」(藍立莫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60.)

8) 相公: 對當官人或身份的人的尊稱.

9) 坐的: 亦作“坐地”. 坐着. 《玩江亭》二折: 「呆漢喲! 你尋一坨兒穩便處閑坐的。」(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437.)

10) 只: 就. 《盛世恒言》二一卷: 「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 只在中原之地, 度三千餘人, 興俺道

得¹³)半點睡，與我把脈息¹⁴)看一看。咳，相公脈息，尺脉¹⁵)較沉，傷¹⁶)着冷物的樣子，感冒風寒。是，小人昨日張少卿¹⁷)的慶賀筵席裏到來，好哥哥弟兄們央及¹⁸)我，燒酒¹⁹)和黃酒²⁰)多吃了，生果子²¹)也多吃了，來到家裏害²²)熱時，把一身衣服都脫了，着²³)這小丫頭²⁴)們打扇子。那般不小心收拾²⁵)身己²⁶)，可知²⁷)得這證候²⁸)。我如今先與你香酥飲子，熬兩服²⁹)吃，熱炕³⁰)上爐³¹)着出些汗。我

家。」(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494。)

- 11) 是：與「似」通用。關漢卿《玉鏡臺》二【牧羊關】：「指頭是三節兒瓊瑤，指甲似十顆水晶。」
- 12) 奪：【夾註】“奪”字未詳。鄉習傳解曰“디고리 뜯 알프다”。奪，音“ㄷ”，去聲讀。
- 13) 不得：不能夠。《金瓶梅詞話》三七回：「若不是老婆子昨日打他門首過，他娘在門首請進我吃茶，我不得看見他哩！」
- 14) 脈息：指脈搏。元·高文秀《遇上皇》第三折：「喚大夫是甚脉息，則我這病眼難醫。」
- 15) 尺脉：中醫切脈部位名。切脈時無名指所按的部位。尺脈，寸口脈三部之一。寸口脈分寸、關、尺三部。桡骨莖突處爲關，關之前(腕端)爲寸，關之後(肘端)爲尺。寸關尺三部的脈搏，分別稱寸脈、關脈、尺脈。【夾註】人有寸、關、尺三部脈。尺脈，主腎命門，屬水而沉；脾屬土。凡人飲食傷脾土，則土不克水而見沉，脈較差也。脈沉，又見《老乞大集覽》。
- 16) 傷：因某種致病因素而得病。如：傷風。傷寒。
- 17) 少卿：【夾註】太常寺、大理寺、光祿寺、太僕寺有卿、少卿，俱三品。
- 18) 央及：懇求，請托。《望江亭》三折 白：「張稍，我央及你，你替我做個落花媒人。」(卜鍵 主編，《元曲百科大詞典》，學苑出版社，1991年，頁184。)
- 19) 燒酒：燒酒指各種透明無色的蒸餾酒，一般又稱白酒，各地還有白干、老白干、燒刀酒、燒鍋酒、蒸酒、露酒、酒露、露滴酒等別稱。
- 20) 黃酒：也稱作“米酒”。
- 21) 果子：(1) 果實，即現在之“水果”。(2) 即饅子。泛指糖食糕點。宋·周密《武林舊事·市食》：「果子：皂兒膏宜利少……諸色糖蜜煎。」【夾註】果實也，又呼油蜜果，亦曰果子，曰蜜果子，制形如棗。按，此作“饅子”。
- 22) 害：生病。《古今小說》卷三六：「侯興一個兒子，十來歲，叫做胖哥，發脾寒害在床上。」(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283。)
- 23) 着：同“著”。叫；讓。《冤家債主》二(鳳鸞吟)：「怎不著我愁，這煩惱甚日休。」
- 24) 丫頭：(1) 使女，婢女。(2) 俗稱女兒。(3) 泛指未婚之女，姑娘。
- 25) 收拾：料理，安排。
- 26) 身己：金元人稱身體爲“身己”。又作身起、身奇(呼如記)、身肌，音近義並同。《劉知遠諸宮調》二【般涉調·沁園春】：「撲翻身己，權時歇待。」(顧學頤 王學奇，同前揭書，卷三，頁317。)
- 27) 可知：此解“當然”。《寶兒冤》二折【隔尾】：「(張驢兒云)你可怕麼？(卜兒云)可知怕裏。」(卜鍵 主編，同前揭書，頁82。)
- 28) 證候：病情。明·劉兌《嬌紅記》上卷：「害相思自小兒何曾慣，這證候服不得千金散、九轉丹。」(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83。)
- 29) 服：量詞。用于稱中藥劑量。一劑稱一服。又中藥煎飲一次亦稱一服。清·東軒主人《述異記·許七遇仙》：「試取藥進之，一服而熟寐，再服而霍然，三服而聲朗體強，壯健異常。」(《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30) 炕：北方人家的一種睡具。用土坯或磚頭砌成，上爲平面，下留烟道回旋連接烟囱，炕前搭爐臺，生火通烟以取暖。

旋³²⁾合³³⁾與你藿香正氣散, 吃了時³⁴⁾, 便無事了。貼兒³⁵⁾上寫與你引子³⁶⁾, 每服³⁷⁾三錢, 水一盞半、生姜三片、棗一枚, 煎至七分, 去滓溫服。然後吃進食丸, 每日三十九, 溫酒送下。我去也。生受相公, 不違³⁸⁾寒生³⁹⁾薄面。勞易⁴⁰⁾前來, 幾時忘這恩念。不敢哥, 小人豈敢有違。故人誠信病中知。

【번역】

甲某: 내가 오늘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몸도 떨려 건널 수가 없네. 범(范)의원을 모셔다가 진맥을 받아 봐야겠네.

奴僕: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甲某: 안으로 모시게. 의원님 앉으시지요. 저의 식은땀이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하고, 골치가 너무 아파서 밤새 한잠도 자질 못했습니다, 맥을 좀 짚어봐 주십시오.

范醫: 허허, 상공의 맥은, 척맥(尺脈)⁴¹⁾이 다소 가라앉은 것으로 보아, 찬

31) 燠: 天旱酷熱。《管子·侈靡》:「有時而燠。」(《簡明古漢語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1年。) 又, (1) 不使火焰竄起, 只冒烟; 悶烟。《醒世姻緣傳》四八回:「走到前邊, 只見窓前門前都豎着秫秸, 點着火待着不着的燠。」(2) 窩之使熱。《朴通事》:「我如今先與你香酥飮子, 熬兩服吃, 熱炕上燠着, 出些汗。」(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837。)

32) 旋: 卽刻, 隨即。

33) 合: 調制。元·孟漢卿《魔合羅》二折:「俺嫂嫂有姦夫, 合毒藥藥殺俺哥哥。」(《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34) 語助辭, 相當於“呵”, 多用在假設分句後。按: 類似現代漢語的“(要是) … 的話”。參看拙稿, <老乞大語彙考(2)> (中國學論叢, 25輯, 09年), 《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 若你不來時, 萬事罷論; 若來呵, 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 表示假設、原因、條件等。

35) 貼兒: 藥方。金·董解元《西廂記》第五卷:「試觀他比個貼兒, 有些湯藥, 教與伊服, 依方修合, 聞着噴鼻香。」(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847。)

36) 引子: 中藥藥方以外另加的一二味輔助藥, 用以發揮正藥的功效。《西遊記》六九回:「此物乃世間所無者。請問那一般引子是何?」(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41。)

37) 服: 此作飲用和食用藥物。

38) 不違: 依從。《論語·爲政》:「子曰:『吾與回言終日, 不違, 如愚。』」何晏集解引孔安國曰:「不違者, 無所怪問, 於孔子之言, 默而識之, 如愚。」

39) 寒生: 貧苦的讀書人。此作謙稱自己。

40) 勞易: 勞, 煩勞他人的敬辭。卽“勞駕”之省。按, 勞易, 應是“勞役誤寫。勞役, 勞苦也。

41) 原文의 尺脈(척맥)은 한방에서 진찰하는 맥박의 하나이다. 노맥(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자세에서 아래팔에 있는 2개의 뼈 중 바깥쪽의 뼈)의 끝부분에 있는 노동맥의 맥박으로 약 손가락으로 짚이는 맥이다.

음식에 몸이 상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감기입니다.

某甲: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장소경(張少卿)의 축하연에 갔었는데, 가까운 형님들과 친구들이 간절히 권하기에 소주(燒酒)와 황주(黃酒)를 많이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 오니 열이 나기에 옷을 모두 벗고 계집종들에게 부채질을 시켰습니다.

范醫: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이렇게 아프신 것이지요. 제가 지금 먼저 향소음자(香蘇飲子) 드릴 것이니, 두 컵을 달여 드시고 뜨끈한 구들⁴²⁾에 몸을 지저서⁴³⁾ 땀을 좀 내십시오. 그리고 바로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조제해 드릴 것이니, 드시면 바로 나으실 것입니다. 약방문에 별도의 보조약제를 써드릴 것이니, 매번 삼전(錢)을 드시는데, 물은 한 잔 반에 생강 셋 편 그리고 대추 한 알을 넣고 칠할 쯤 달여 찌꺼기를 걸러서 따뜻하게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진식환(進食丸)을 드시는 데, 매번 삼십 알을 따뜻한 술과 함께 드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某甲: 고생하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⁴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范醫: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42)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의 전통가옥에서 볼 수 있는 가옥 즉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방법을 말하는 우리말이다. 강(炕, kang)은 중국 북쪽지역에서 쓰이는 가옥의 난방의 한 방식을 말한다. 앞의 註 28)번에서처럼, 실내의 한쪽에 벽돌 등을 쌓아 속이 빈 침대 형태의 구들을 만들어 火氣를 통하도록 열을 얻는 방식을 말함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炕)' 대신 '구들'로 번역하였다.

43) 原文의 '焮'는 앞의 註 29)번에서처럼 古代漢語에서는 '天旱酷熱(날씨가 엄청 덥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近代漢語에서는 '충분히 연소하지 못하여 연기만 피어오르거나, 연기만 나고 불꽃이 없이 타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許少峯은 《朴通事》의 原文을 用例로 제시면서 '焮'를 '窩之使熱(이부자리를 뜨겁게 하다)'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原文의 '熱炕上'에서 '熱炕'은 定語이고, '上'은 定語의 수식을 받는 中心語이므로, '熱炕上'은 장소를 나타내는 詞語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熱炕上焮着些汗'은 '(你在)熱炕上(把身體)焮着些汗' 또는 '(你在)熱炕上(把被窩)焮着些汗'의 준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여기에서의 '焮'字의 쓰임은 '몸을 지지다',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44) 原文의 '勞易'는 '勞役'의 誤寫이다.

甲某：친구의 마음은 아플 때 알 수가 있습니다.

第48話 大娘身子好麼

我姝姝⁴⁵⁾使的我說將⁴⁶⁾來⁴⁷⁾，大娘⁴⁸⁾身子好麼？這幾日高麗地面裏來的這海菜、乾魚、脯肉，饋⁴⁹⁾婆婆⁵⁰⁾口到些箇。好意思，好意思。女兒說與你姝姝，這般稀罕的好物，重意⁵¹⁾的多與將來，我這裏好生多吃了。再有一件，醬麴⁵²⁾今年沒處尋，一發⁵³⁾稍⁵⁴⁾將些醬麴來最好。這般的有甚麼稀罕？又沒多。咳，這孩兒也好不識，却不說⁵⁵⁾：人離鄉賤，物離鄉貴。

【번역】

女兒：저의 어머니⁵⁶⁾가 저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건강하시고

45) 姝姝：同“孀”。孀孀，亦作“奶奶”。(1) 母親。(2) 祖母。也尊稱祖母輩的婦女。(3) 對已婚婦女的尊稱。(4) 對女子作昵稱。(《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夾註】汎稱尊長妻室曰姝姝。

46)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47) 來：語助詞。

48) 大娘：(1) 對年長婦人的敬稱。(2) 妾對正妻的敬稱。(3) 猶伯母。(《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夾註】《音義》云：안해님이라 호듯 혼 말. 今按：汎稱尊長妻室曰“大娘”，又稱人之正妻曰“大娘”，妾曰“小娘”。按，此作“對年長婦人的敬稱”。

49) 饋：給，替。

50) 婆婆：(1) 對老年婦女的尊稱。(2) 祖母。(3) 母親。(4) 丈夫之母。(5) 妻子。(《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夾註】汎稱老嫗之謂，或呼尊屬老婦之稱。又，祖母曰“婆婆”。

51) 重意：深情厚意。元·喬吉《金錢記》第三折：「小生有何德能，着老相公這等重意管待也。」

52) 醬麴：一種用熟的黃豆或黑豆經發酵后制成的食品。也作“豆豉”，“豆醬餅”。

53) 一發：一起，一並。《水滸全傳》二回：「我家也有頭口驢馬，教莊客牽出後槽，一發喂養。」(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364。)

54) 稍：順便帶，附帶。通“捎”。關漢卿《救風塵》上二折：「我這隔壁有個王貨郎，他如今去汴梁做賣買，我寫一封信稍將去，着俺母親和趙家姐姐來救我。」(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45。)

55) 却不說：也說“却不道”。常言道，俗話說。鄭庭玉《金鳳釵》二折：「當日嫁這窮書生，你是樂者爲之樂，有錢時歡喜無錢叫。却不道貧不憂愁富不嬌驕。」(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397。)

56) 原文‘姝姝’에 대한 별도의 諺解는 없다. 다만 本文에서 ‘大娘(큰어머니)’, ‘女兒(딸)’과 ‘婆婆(할머니)’라는 호칭으로 미루어 ‘할머니’보다는 ‘어머니’의 호칭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요? 요 몇 일전 고려 땅에서 온 이 미역과 말린 생선(乾魚) 그리고 말린 고기(脯肉)를 할머니께 맛을 좀 보시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⁵⁷⁾

大娘 : 참으로 고마운 일이구나. 네가 어머니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 이렇게 마음을 쓰시어 많이도 보내주셔서 내 잘 먹겠다고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메주⁵⁸⁾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메주도 함께 보내주셔서 참 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라!

女兒 : 이러한 물건이 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大娘 : 아이고! 이 아이가 뭘 모르는구나! 속담에 ‘人離鄉賤, 物離鄉貴(사람은 집을 떠나면 천대를 받고, 물건은 산지를 벗어나면 대접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第49話 飯也好生吃不得

姐姐⁵⁹⁾, 我看上⁶⁰⁾你, 飯也好生吃不得。常言道 : 男兒無婦財無主, 婦人無夫身無主。怎⁶¹⁾刮劃⁶²⁾我這一場愁! 咳, 你說甚麼話? 我夫主⁶³⁾知道時⁶⁴⁾了不得⁶⁵⁾,

57) 原文 ‘口到些箇’에 대한 언해는 ‘입브티(맛보다)쇼셔’이다.

58) 原文의 ‘醬麴’은 장을 담그는 메주이다. 메주는 말장(末醬), 밀조(密祖), 훈조(燻造), 장국(醬麴), 머조, 메조, 머주 등으로 불린다.

59) 姐姐 : 此作對平輩年輕婦女的稱號.

60) 看上 : 相中, 看中. 《紅樓夢》第四回 : 「這也是前生冤孽, 可巧遇見這丫頭, 他便一眼看上了, 立意買來作妾。」(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31.) 【夾註】猶言見取之意.

61) 怎 : 如何, 怎麼.

62) 刮劃 : 按排, 籌措. 元·缺名 《盆兒鬼》楔子 : 「似這般少米無柴怎刮劃, 因此上背井離鄉學賣貢。」(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34.) 刮劃, 亦作「擺劃」、「擘劃」、「劈劃」、「布劃」、「擘畫」。《水滸傳》二十回 : 「兄長不必憂慮, 小生自有。」(龍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931.) 【夾註】排擠開割之意. 刮, 韻書不收, 『免疑韻略』作「百」。凡陌韻陌字類諸字, 皆呼如泰韻之音, 故百字呼如「擺」字, 而鄉習傳呼刮字音「배」, 亦從上聲讀, 則字作「擺」亦通.

63) 夫主 : 妻子尊稱丈夫.

64) 時 : 表示假定的語助詞. 多用在假設分句後. 按 : 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 《中國學論叢》, 25輯) 《黃鶴樓》一折白 : 「玄德公也, 若你不來時, 萬事罷論; 若來呵, 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 表示假設、原因、條件等.

再來休說這般不曉事⁶⁶⁾的話。姐姐，我不想⁶⁷⁾你這般⁶⁸⁾煩惱，不妨事⁶⁹⁾。古人道：“隔簾聽笑話，燈下看佳人”，氣殺我也！姐姐，你再尋思⁷⁰⁾我這秋月紗窗一片心，只滅了我這心頭火，強如⁷¹⁾良藥治病。怕⁷²⁾沒治病的心那？只怕同房⁷³⁾人攪撒⁷⁴⁾了，又怕窗孔裏偷眼兒看。那的有法度⁷⁵⁾。推出後⁷⁶⁾去的一般⁷⁷⁾出來時，怕甚麼⁷⁸⁾？你且休忙休心焦，有緣千里能相會，無緣對面不相逢，兩心相照亦不難。

【번역】

甲某：누님! 내가 누님을 좋아하게 되어, 밥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男兒無婦財無主，婦人無夫身無主(사내는 마누라가 없으면 재물

65) 了不得：非常之意。形容事情重大。

66) 曉事：明白事理。懂事。明·高則誠《琵琶記》第十六出：「咳，這秀才好不曉事，聖旨誰敢違背。」(許少峯 編，同前揭書，頁2052。)

67) 不想：不顧。關漢卿《單刀會》一【寄生草】：「你則待千軍萬馬惡相持，全不想生靈百萬遭殘暴。」(藍立冀 編著，同前揭書，頁23。)

68) 這般：這樣。這麼。

69) 不妨事：沒關係，不成問題。元·蕭德祥《殺狗勸夫》第一折：「小叔叔，不防事，等着你哩！你過去吃幾鐘酒，身上寒冷哩！」(許少峯 編，同前揭書，頁140。)

70) 尋思：考慮，思索。元·孔文卿《東窓事犯》第一折：「恁尋思思想，俺安邦定邦；恁尋思思想，立朝綱紀綱。我不合扶持的帝業興，我不合保護的山河壯。」(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23。)

71) 強如：勝過，超越。

72) 怕：表示反詰。猶難道，豈。元·無名氏《舉案齊眉》第一折：「你道他現貧窮合受貧窮苦，他有文章怕沒有文章福？」(《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73) 同房：謂同一房間居住。《紅樓夢》第五八回：「薛姨媽素習也最愛他的，今既恰遇這事，便挪至瀟湘館來和黛玉同房。」(《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74) 攪撒：攪撒，應是「決撒」或「撒撒」、「撒撒」。決撒，暴露，敗露，出亂子。撒撒，弄壞。謂流產，小產。《金瓶梅詞話》第三十回：「月娘道：『李大姐，忽然害肚里疼，屋裏躺著哩。我剛纔使小丫頭請他去了。』因向玉樓道：『李大姐七八臨月，只怕攪撒了。』」(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夾註】攪，作覺是。覺字雖入聲，而凡入聲清聲，則呼如上聲者多矣。如角字，亦或呼如上聲。記書者以覺撒之覺呼為上聲，而謂覺字為入聲，不可呼如上聲，故書用攪字耳。撒，猶知也。俗語亦曰決撒了。今以撒放之撒用為知覺之義者，亦未詳。

75) 法度：本領；手段。《獨角牛》二白：「娘也，打殺我也！法度利害，禍不是好惹的。」

76) 推出後：推，借故，假托。《武王伐紂平話》上卷：「娘娘取一日推作生辰，遍告諸宮監，必來與娘娘賀生辰。」(許少峯 編，同前揭書，頁1882。)

【夾註】漢人指厠為「後路」，詳見『老乞大輯覽』上篇「東厠」下。又「大便」、「小便」，亦曰「大後」、「小後」。

77) 一般：相似，猶如。《金瓶梅詞話》二五回：「玉樓聽了，如提在冷水盆內一般，先吃一驚。」(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88。)

78) 怕甚麼：有何不可。又作「怕做甚麼」。關漢卿《哭存孝》四 李克用白：「息婦兒也，你也辭我一辭去，怕做甚麼？」

을 모을 수 없고, 여인네에게 남편이 없으면 몸을 지킬 수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근심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 주시오!

姐姐 :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 남편이 아신다면 큰일이 날것이니, 다시는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지도 마세요.

某甲 : 누님! 난 그런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옛말에 '발 사이에 두고 웃음소리를 듣고, 등잔불아래의 여인이 더 예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시다! 누님, 누님이 이 애타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내 마음속의 불꽃을 꺼주시는 것이 어떤 좋은 약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姐姐 : 아픈 마음을 고쳐드릴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남편이 알까⁷⁹⁾ 두렵고, 또 남이 문구멍으로 훑쳐볼까 두렵습시다.

某甲 : 그런 것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뒤⁸⁰⁾ 보러 가는 것처럼 하고 밖으로

79) 原文 '攪撒'에 대해 諺解는 '알다'라고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近代漢語詞典에서도 앞의 註 71)번에서처럼 '弄壞(망치다)', '落空(허사가 되다)', '暴露(폭로되다)' 등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攪撒'를 '暴露'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原文 '只怕同房人攪撒了'에 대한 諺解「그저 東房 사람이 알까 저푸고(남편이 알까 두렵다)」의 해석은 정확하다. '攪撒'에 대한 【夾註】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攪'은 '覺'이 맞다(攪, 作覺是)이고, 하나는 '攪撒'는 俗語로 '決撒了'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攪'는 '覺'가 되어야 한다면, '覺'字는 '知'의 의미를 가지므로 諺解의 풀이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語彙 '攪撒'에 대해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 92년의, 433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決撒 ① 亦作蹶撒、擲撒。暴露, 敗露, 出亂子。② 決裂, 齟齬。」【夾註】에서 제시하고 있는 '決撒'가 '폭로되다'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攪撒'는 '알다, 알려지다, 드러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攪撒'는 '決撒'와 소리가 같은 '通假'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攪撒'와 소리가 비슷한 '覺察'의 語彙를 《漢語大詞典》에서 찾을 수 있는데, '覺察'는 '發覺, 察知, 檢舉揭發'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攪撒'는 '覺察'의 通假字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0) 原文 '推出後'에 대해서 앞의 註 73)번의 【夾註】에서는 「漢人是 뒷간(厠)을 '後路'라고 한다. 상세한 것은 『老乞大輯覽』上篇 '東厠'에서 볼 수 있다. 또 '大便', '小便'을 '大後', '小後'라고도 말한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에 『老乞大輯覽』의 '東厠'條를 보면 '出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卑少於尊前呼厠曰後路。凡人自稱詣厠曰出後, 於尊處稱曰出恭。(… 아래 사람이 위사람 앞에서 뒷간(厠)을 말할 때는 '後路'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뒷간(厠)을 이룰 때는 '出後'라고 하고, 위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出恭'이라고 한다.)」本稿는 『老乞大輯覽』과 【夾註】에서 제시하고 있는 '後路', '出後', '大後', '小後' 등의 어휘에 대해서 近代漢語詞典에서 그 用例나 풀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온다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姐姐：그대는 서두르지 마시고 애태우지도 마세요, 인연이 되면 천 리를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보고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니, 두 마음이 서로 통하고 알아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第50話 每日家

這幾個賊漢⁸¹⁾們，一日吃三頓家飯，每日家⁸²⁾閑浪蕩⁸³⁾做甚麼？一個賊漢那靴鋪裏學生活⁸⁴⁾去，一個狐帽匠⁸⁵⁾家學生活去。兩個漢子把那驢騾們喂的好着，將十兩銀子東安州⁸⁶⁾去放黑豆，收拾車輛，先載將一車來。又兩個人將五兩銀子下馬莊⁸⁷⁾裏去，放稈草⁸⁸⁾，五錢一束家放。把樓草⁸⁹⁾二錢半一束家商量⁹⁰⁾着放饌。再那一個小廝將二兩銀到西山⁹¹⁾裏，錢半一束家，五百來束稻草裏放。這們時，一

81) 賊漢：罵詞。

82) 每日家：成天，鎮日地。家，助詞。同“每日價”。

83) 浪蕩：游手好閑，吊兒郎當。《娛日醒心編》第七卷第一回：「有一班少年浪蕩子弟，常在庵中過宿，把一個修行佛地當作楚館秦樓。」（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04。）

84) 生活：指手工製品。《元典章·戶部八》：「令各處鋪戶之家，長現在鐵器生活須管立限發賣了畢。」（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285。）

85) 狐帽匠：【夾註】《音義》云：터럭장。今按：以有毛皮作大小帽者，謂之胡帽匠，狐字作“胡”。猶本國“毛衣匠”之類。

86) 東安州：【夾註】在東安縣西北。金以前皆爲縣，元陞爲州，今避水患移今治，在順天府南一百里，故城遂廢，洪武初改爲縣。

87) 下馬莊：【夾註】地名。

88) 稈草：稈同“秆”。今北方人謂禾莖曰秆草，以飼馬牛，又以爲簾薄。（《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夾註】稈，禾莖也，卽稭之和皮者也。中國北方土地高燥，宜粟不宜稻，故治田好種粟。收粟者截穗取實，留其稈以飼馬，因名其稈曰“稈草”，亦曰“穀草”。稈音“夏”，稻稈曰稻草。

89) 樓草：樓，兩臂合抱，用手臂攏着。樓草，“樓草”是秋、冬時用扒子貼地收集枯草燒火用。按，此作“枯草”。【夾註】樓，探聚也。收禾登場，截穗取實，亂撒禾稈在場，仍而樓聚者曰“樓草”。

90) 商量：討價還價。《宣和遺事》元集：「楊志…將一口寶刀出市貨賣，終日價無人商量。行至日晡，遇一惡少後生要買寶刀。」（龍潛庵 編著，同前揭書，頁845。）

91) 西山：【夾註】在順天府西三十里太行山首，始于河內，北至幽州，強形鉅勢，爭奇擁翠，雲從星拱于皇都之右。每大雪初霽，千峰萬壑，積素凝華，若圖畫然，爲京師八景之一，曰西山霽

個冬裏這頭口⁹²⁾們勾吃了。

【번역】

이놈의 자식들은, 하루에 밥을 세끼씩이나 먹고, 날마다 빈둥빈둥 뭘 하는 것이야! 한 녀석은 저기 신발 가게로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하나는 털가죽을 만드는 장인에게 가서 기술을 배우도록 해라. 두 명은 저기 나귀와 노새들을 잘 먹이도록 하고, 銀子 열 량(兩)을 가지고 東安州로 가서 검은콩을 수매⁹³⁾하여, 수레를 준비하여 먼저 한 수레를 실어 오너라. 또 두 명은 銀子 다섯 냥(兩)을 가지고 하마장(下馬莊)에 가서 조짚을 사되 한 묶음에 다섯 전(錢)에 사라. 건초⁹⁴⁾는 값을 흥정하여 한 묶음에 두 전(錢) 반을 주고 사거라. 그리고 한 아이는 銀子 두 냥(兩)을 가지고 서산(西山)으로 가서, 한 묶음에 일 전(錢) 반, 벗짚 오백 묶음을 사거라. 이렇게 하면 가축들이 겨우내 먹기에 충분할 것이다.

第51話 參見觀音菩薩眞像

咱兌付⁹⁵⁾些盤纏⁹⁶⁾, 南海普陀落伽山⁹⁷⁾裏, 參⁹⁸⁾見觀音菩薩眞像去來. 這菩薩眞

雪。今見北京西城外有一座, 即是。

92) 頭口：牲口。《元典章》：「凡達達漢人, 偷頭口一個, 陪九個。」王鏊 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 1991年, 頁391。頭口, 指騾馬驢牛之類大牲畜。元·高文秀《薛范叔》第二折：「這的是喂頭口的草料, 怎生與小生吃?」(《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夾註】汎指馬、牛、猪、羊之稱。數猪以頭, 數牛亦曰頭, 數羊以口, 數猪亦曰口, 故汎稱畜口曰「頭口」, 牛、馬亦曰頭正。

93) 原文「將十兩銀子東安州放黑豆」의 諺解는 '열 량 은을 가지고 東安州에 가 거른 콩에 노하'이다. 앞뒤의 문맥과 諺解를 보면 '열 냥의 銀子를 가지고 東安州에 가서 검은 콩을 사다'로 풀이가 된다. 第50話 本文에서 '放'字의 用例는 총 다섯 번으로 모두 '사다(구입하다)'의 의미를 가져야 하지만 한결같이 '~ 노하', '~ 노호되', '~ 노코' 등으로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말에 '(값을)놓다'라는 말이 있어, '放'字를 '수매하다'로 번역을 하였다.

94) 原文의 '撻草'는 (조나 피 따위의 낱알을 떨어낸)조짚이 아닌 건초(베어서 말린 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5) 兌付：付。關漢卿《竇兒冤》一卜兒白：「我數次索取這銀兩, 他兌付不起。」(藍立冀 編著, 同前揭書, 頁74。)凭票據支付現金。清·蒲松齡《聊齋志異·局詐》：「某拜恩出。即有前日裘

乃奇哉，理圓四德⁹⁹⁾，智滿十身¹⁰⁰⁾。灑悲¹⁰¹⁾雨于遐¹⁰²⁾方，扇慈風¹⁰³⁾于刹土¹⁰⁴⁾。座飾芙蓉¹⁰⁵⁾，湛¹⁰⁶⁾南海澄清之水¹⁰⁷⁾，身嚴¹⁰⁸⁾瓔珞¹⁰⁹⁾，居普陀空翠¹¹⁰⁾之山。或做童男，或做童女¹¹¹⁾，或現質梵王帝釋¹¹²⁾，或分身居士宰

馬者從至客邸，依券兌付而去。」

- 96) 盤纏：此作“路費，旅費”。高則誠《琵琶記》三二出：「路途多勞倦，行行甚時近，未到洛陽城，盤纏多使盡。」(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846。)
- 97) 南海普陀落伽山：也做“南海普陀珞珈山”。【夾註】山在寧波府之海縣，古昌國縣海中。佛書所謂海岸高絕處，普陀落伽山，世傳觀音現像于此，上有普陀寺。普陀落伽，唐言小白花，卽山簪花也，山多小白花，故仍名。往時高麗、新羅、日本諸國，皆由此取道以候風汛，『翻譯名義』云：補陀落迦，此云海島，又云小白花。按，普陀山，與山西五台山、四川峨眉山、安徽九華山并稱爲中國佛教四大名山，是觀世音菩薩教化衆生的道場。
- 98) 參：【夾註】禮覲也。
- 99) 理圓四德：【夾註】理者，固常道之至也。圓，全備也。四德，曰常，曰樂，曰我，曰淨無二。生死爲常，不受二邊爲樂，具入自在爲我，三業清淨爲淨。又我者卽是佛義，常者卽是法身義，淨者卽是法義，樂者卽是涅槃義。大抵梵語，經文釋義不一，今不煩解。
- 100) 智滿十身：【夾註】本爲覺知，始覺爲智。滿，備也。十身有調御。十身，曰無着，曰弘願，曰業報，曰住持，曰涅槃，曰淨法，曰眞心，曰三昧，曰道性，曰如意。有內十身，曰菩提，曰願，曰化，曰力持，曰莊嚴，曰威勢，曰意生，曰福德，曰法，曰智。有外十身，曰自，曰衆生，曰國土，曰業報，曰聲聞，曰圓覺，曰菩薩，曰智，曰法，曰虛空。
- 101) 悲：憐憫也。
- 102) 遐：遠。
- 103) 悲雨慈風：【夾註】佛發大慈悲，廣濟衆生，猶灑雨發風然，無遠不被，故曰風雨。佛有四無量心，慈悲喜捨。
- 104) 刹土：크세트라를 음역한 찰(刹)과 漢譯語인 토(土)가 결합된 말. ⇒ 국토(國土)。【夾註】梵語。刹，此云竿，卽幡竿也。…『瓔珞經』云：刹土，內聖賢所居之處。又，刹土猶言法界也。又號伽藍曰梵刹者，以柱爲表也。
- 105) 座飾芙蓉：【夾註】『翻譯名義』云：大論問：諸床可坐，何必蓮華？答曰：牀爲世間白衣坐法，又以蓮華軟淨，欲現神力，能坐其上，令不壞故，又以莊嚴妙法故，又以此華華臺嚴淨香妙可坐故。湛，沒也，滄也。
- 106) 湛：浸也。
- 107) 澄清之水：澄，水靜而清也。澄清之水，謂清澈而平靜無波的水。
- 108) 嚴：應是“嚴飾”。嚴飾，裝飾美盛：盛飾。晉·法顯《佛國記》：「其城門上張大幃幕，事事嚴飾，王及婦人采女皆住其中。」
- 109) 瓔珞：【夾註】頸飾也。『普門品經』云：無盡意菩薩解領下衆寶瓔珞而以與之。一說，珠在頸曰瓔，在身曰珞。
- 110) 空翠：(1) 指綠色的草木 (2) 指綠叶 (3) 指青色的潮濕的霧氣 (4) 指碧空、蒼天 (5) 指清澈的泉水。
- 111) 童男童女：【夾註】觀音現三十二應，曰佛身，曰辟支，曰圓覺，曰聲聞，曰梵王，曰帝釋，…曰童男，曰童女，…應作種種身，或在天上，在人間，隨其所樂，皆令見衆生形相各不同，行業音聲亦無量。
- 112) 梵王帝釋：【夾註】有欲界、色界、無色界爲三界。欲界有四洲、四惡趣、六欲，天帝釋爲欲界主。色界有四禪，十八梵天，梵王爲色界主。無色界有四空天。

官¹¹³)。以聲察聲¹¹⁴)，拯¹¹⁵)悲酸于六道¹¹⁶)。隨相現相¹¹⁷)，救苦惱于三途¹¹⁸)。起浮屠¹¹⁹)于泗水之間，結草廬于香山之上¹²⁰)。執楊柳于掌內，拂病體于輕安¹²¹)。傾甘露于瓶中，濟險途于飢渴¹²²)。面圓璧月¹²³)，身瑩¹²⁴)瓊瑤，齒排柯雪¹²⁵)，眉秀垂楊¹²⁶)。由是威神莫測，聖德難思，故得天¹²⁷)之喜躍¹²⁸)，鬼神之歡欣。萬民無搔擾之憂，百姓有安祥之慶。若人有難，念菩薩名，速詣¹²⁹)

113) 居士宰官：【夾註】隱居之士，宰輔之官。佛書云：應以居士得道者必在居士，應以宰官得到者必現宰官。…皆謂之居士。

114) 以聲察聲：【夾註】聞其聲以察其苦樂之狀。

115) 拯：援救，救助。

116) 六道：佛學術語，指有情生活、輪回于其中的六個界別。即：一、天道。二、阿修羅道。三、人道。四、畜生道。五、餓鬼道。六、地獄道。此中上三道，為三善道。因其業力(善惡二業，即因果)較善良故；下三道為三惡道，因其業力較慘惡故。一切處于分段生死的衆生，皆在此六道中輪回。【夾註】天道、阿修羅道、人道、畜生道、餓鬼道、地獄道。亦名六趣，加仙道，名曰七趣。阿修羅有大力神人，嘗共天鬪，居業豐盈，皆謂之居士。

117) 隨相現相：【夾註】隨其衆生之相，自為其相而往救焉。『翻譯名義』云：佛昔為帝釋時，遭飢歲，疾疫流行，醫療無功，道殣相屬。帝釋悲愍，思所救濟，乃變其形為大蟒身，殭屍出于谷，空中遍告，聞者感慶，相率奔赴，隨割隨生，療飢療疾。

118) 三途：亦作“三涂”。佛學術語，即火途(地獄道)、血途(畜生道)、刀途(餓鬼道)。【夾註】餓鬼道、畜生道、地獄道。

119) 浮屠：亦作“浮圖”。佛教語。梵語 Buddha 的音譯。佛陀，佛。按，此作“佛塔”。【夾註】浮屠，即塔也。唐言高顯也。『神僧傳』云：僧伽大師，西域人…觀音化身。

120) 結草廬于香山之上：【夾註】『翻譯名義』云：『西域記』云，阿耨達，水名，在香山之南。觀此則香山亦西域山也，而未詳所在。結廬事亦未詳。

121) 執楊柳于掌內，拂病體于輕安：【夾註】佛圖澄，天竺人也。妙通玄術，善誦呪，能役使鬼神。石勒聞其名，召試其術，澄取鉢盛水，燒香呪之，須臾，鉢中生青蓮花。勒愛子暴病死，澄又取楊枝沾水，洒而呪之，遂生。自後凡謝僧醫病曰辱沾楊枝之水。

122) 傾甘露于瓶中，濟險途于飢渴：【夾註】『翻譯名義』云：梵言軍持，此云瓶。軍持有二，若瓷瓦者是淨用，若銅鐵者是觸用。『西域記』云：軍持，澡瓶也。尼畜軍持，僧畜澡罐，佛經云：佛洒甘露水。又云：開甘露門。又云：手執青楊枝，徧洒甘露之水。然甘露源流未詳。

123) 面圓璧月：璧月，月圓像璧一樣，對月亮的美稱。【夾註】璧，天生瑞玉，盈尺餘，形圓者也。佛八十種好，云面圓淨如滿月。

124) 身瑩瓊瑤：《說文》：「瑩，玉色。一曰石之次玉者。」按，瑩，瑩華(光輝)。瓊瑤，瓊，泛指美玉。瑤，古同「瑰」。美玉，美石。按，此作「事物的美好」。【夾註】瑩，玉色潔也。瓊瑤，石次玉者也。瑤，音“刁”，平聲。佛八十種好，云身有光明，又云身清淨，又云色潤澤如瑤瑤。

125) 齒排柯雪：應是“珂雪”。珂雪，指白雪。喻如玉般潔白。【夾註】謂齒如雪堆枝柯之上，淨白頓整之形，似人所編排然。佛三十二相，有四十齒相，有齒白淨相，有齒齊密相。

126) 眉秀垂楊：【夾註】佛十相，有眉細垂楊柳。

127) 人天：指人界及天界，系六道、十界中之二界，皆為迷妄之界。

128) 歡躍：歡欣踊躍。

129) 詣：至也。

其處, 救衆生難, 尋聲救苦, 應念除災¹³⁰⁾。如是菩薩不可不參。咱這衆生¹³¹⁾知不知作一切¹³²⁾罪障, 有千有萬, 咱也到佛所, 誠心懺悔, 後不復作, 咱如今身已安樂時節, 不修善時, 如同禽獸之類。一針投海底, 尙¹³³⁾有可得日, 一失人身後, 萬劫¹³⁴⁾再逢難。

【번역】

우리 여비를 지불하고 南海의 普陀落伽山¹³⁵⁾으로 관음보살님을 참배하러 갑시다. 이 보살님은 참으로 기이하시여, 리(理)는 사덕(四德)¹³⁶⁾을 갖추셨고, 지혜(智慧)는 十身¹³⁷⁾을 갖추셨다. 憐憫(悲雨)을 먼 사방에 뿌리시고, 慈

130) 尋聲救苦, 應念除災: 【夾註】『史記』: 昔廬景裕繫晉陽獄, 志心念觀世音菩薩, 枷鎖自脫。又有人當死, 志心誦『觀世音菩薩普門品經』千百遍, 臨刑刀折, 因以赦之。

131) 衆生: 【夾註】一切衆染, 合集而生, 故曰衆生。又, 衆緣和合名曰衆生。衆, 平聲。

132) 一切: 【夾註】一以普及爲言, 切以盡除爲語。

133) 尙: 還也。

134) 萬劫: 古印度婆羅門教名詞: 劫, 梵文(kalpa)의 劫譯音-波“(或劫歲)”의 略稱。意爲極久遠의 時節, 是古印度婆羅門教의 宏觀時間概念之一。古印度婆羅門教傳說宇宙經歷若干萬年毀滅一次, 重新再開始, 這樣一個周期叫做一“劫”。【夾註】儒曰世, 釋曰劫, 道曰塵。一說儒家曰數, 道家曰劫, 佛家曰世。『道經』云: 天地一成一敗, 謂之劫。…又六十年一甲子, 一百年爲一小劫, 一千年爲中劫, 三中劫爲一大劫。佛家初劫爲釋迦牟尼佛, 二劫爲寶髻佛, 三劫爲燈燃佛。漢武帝鑿昆明池, 其底有灰, 帝問東方朔, 對曰: “此劫灰也。”

135) 普陀山(보타산) 중국 절강성(浙江省) 주산(舟山) 군도의 한 섬에 있는 중국 사대 불교명산 중의 하나이다. 전설상 남(南)인도에 있다는 관세음보살의 영지(靈地) ‘보타락(補陀落: 범어로 Potalaka)’의 명칭을 딴 것으로, 당(唐)나라 때 어떤 승려가 오대산(五台山)에서 관음상(觀音像)을 가지고 오는데 배가 이곳에 이르자 저절로 밋은 채 움직이지 않으므로 보타사(寶陀寺)를 세우고 불상을 모신 것이 성지가 된 시초라 한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볼 수 있는 관음보살(觀音菩薩, Avalokitesvara)의 설명이다: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광세음보살光世音菩薩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당대(唐代)에 대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의 휘자(諱字)를 피하여 ‘世’자를 생략하고 ‘관음’이라고 불렀다.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서원한 보살로서,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 속에 거의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신앙되었다. <법화경法華經> <보문품普門品>에는 위난(危難)을 당한 중생이 그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관음이 즉시 33종류의 화신으로 변해 그들을 구해준다고 되어 있으며, 현령(顯靈)하여 불법을 강연하던 도량(道場)이 절강성浙江省 보타산普陀山에 있다고 한다.」

136) 原文의 ‘四德’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涅槃)의 네 가지 德. ① 常(영원히 변하지 않음) ② 樂(괴로움이 없고 평온함) ③ 我(大我·眞我의 경지로, 집착을 떠나 자유 자재하여 걸림이 없음) ④ 淨(번뇌의 더러움이 없음).

137) 原文의 ‘十身’은 【夾註】에서처럼 종류가 많다. ‘十身’은 十種의 불신(佛身)을 말함인데, 이것은 보살의 깨달은 지혜에 의해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본 것이다.

愛(慈風)는 온 누리에 부셨다. 좌대(座臺)의 芙蓉¹³⁸⁾은 南海의 고요한 물결에 떠 있고, 몸에는 영락(瓔珞)을 두르시고 푸르른 보타산(普陀山)에 자리하셨다. 때로는 동남(童男)으로 때로는 동녀(童女)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범천왕(梵天王)¹³⁹⁾으로 또 제석천(帝釋天)¹⁴⁰⁾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는 거사(居士)¹⁴¹⁾나 재관(宰官)¹⁴²⁾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신다.¹⁴³⁾ 衆生의 소리를 살피시어 비통의 육도(六道)¹⁴⁴⁾에서 구원하셨고, 중생의 모습을 살피시어 고뇌의 삼악도(三惡道)¹⁴⁵⁾에서 구원하셨다. 불탐(浮屠)¹⁴⁶⁾은 사수(泗水)에 세워

138) 原文의 ‘芙蓉’ ‘水芙蓉’으로 연꽃을 말한다. ‘芙蓉’은 또 ‘木芙蓉’으로, 즉 ‘부용꽃’을 말한다.

139) 原文의 ‘梵王’은 ‘梵天王’ 大梵天王이라고도 한다. 바라문교(婆羅門教)의 교조(教祖)인 조화(造化)의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사바세계를 주재한다. 특히 불교의 보호신으로 불교도들의 숭상(崇尚)을 받고 있다.

140) 原文의 ‘帝釋’은 수미산(須彌山) 정상에 희견성(喜見城)에 있으면서 33천(天)을 통괄하고 아수라(阿修羅)라는 마신(魔神)과 싸워 인류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주의 동서남북을 1개월씩 순회하면서 큰 거울로 그곳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것으로, 악마를 다스리는 신이다.

141) 原文의 ‘居士’는 재가신자 중 남자를 뜻하는 우바이와 성격이 비슷하다. 집주인 또는 집에 있는 남자를 뜻하는 산스크리트 그라파티(grha-pati)에서 유래하였다. 재산이 많은 자산가를 의미하여 경전에는 장자(長者)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한다. 불교에 수용된 이후에는 불교에 귀의한 재가신도 중 남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였다.

142) 原文의 ‘宰官’은 관세음보살의 現身인 三十三身の 하나. 즉,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는 의미다.

143)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설할 때, 행여나 자신의 설법을 못 알아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중생이 생길까 봐 중생의 근기(根機)에 맞춰 아주 쉽게 설법하기도 하고 문학적인 비유를 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배 대상이 석가여래를 비롯해 비로자나불, 미륵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도 중생 하나하나의 사정에 맞춰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 때문이다. 관세음보살 역시 중생의 종교적인 소절이나 능력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였는데, 경전에 따라 서른두 가지 혹은 서른세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 <관세음보살의 서른두 가지 모습>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미의 재발견 - 불교회화, 2005.1.10, 서울출판사)

144)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되는 6가지 세계 또는 경계. 망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중에 가장 좋지 못한 곳인 삼악도(三惡道)는 지옥도(地獄道), 그 다음이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이며 삼선도(三善道)는 아수라도(阿修羅道) 또는 수라도,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帝)의 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다.

145) 살아서 지은 죄과로 인하여 죽은 뒤에 간다는 지옥도(地獄道)와 축생도(畜生道)와 아귀도(餓鬼道)의 세 악도.

146) 原文의 ‘浮屠’는 일반적으로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墓塔)을 말함인데, 원래는 불타(佛陀)와 같이 붓다(Buddha)를 번역한 것이라 하고 또는 술도파(率屠婆, stupa), 즉 탑파(塔婆)의 전음(轉音)이라고도 한다. 어원으로 본다면 불타가 곧 부도이므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불상이나 불탑이 바로 부도이며, 더 나아가 승려들까지도 부도

지고, 암자를 향산(香山)에 지으셨다. 버들가지를 손에 쥐시고, 병든 몸을 살며시 끌어 낫게 하셨고,¹⁴⁷⁾ 병속의 감로수로 배 고품과 목마름에서 구제해주셨도다. 얼굴은 벽옥(碧玉)처럼 둥글고, 몸은 옥처럼 맑으시고, 이는 눈처럼 희고, 눈썹은 수양버들과 같으시다. 이로 말미암아 위신(威信)¹⁴⁸⁾과 성덕(聖德)은 그 깊이를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 이에 人界와 天界의 衆生¹⁴⁹⁾과 鬼神들은 기쁨을 얻었고, 萬民은 근심걱정 없는 평안함을 얻었도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 보살을 부르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시고, 부르는 소리를 찾아 고통과 재난에서 구해주셨다. 이러한 관음보살님을 참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천만가지가 되니, 우리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성심으로 참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할 때 善德을 쌓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바늘 한 개가 바다에 떨어지면 다시 찾을 날이 있지만, 사람 한 번 죽으면 만겁(萬劫)이 지나도 사람으로 환생하기 어렵다.

第52話 好生用心看家

今日上直¹⁵⁰⁾去, 你將鋪蓋¹⁵¹⁾送去. 那厮你也將那箭袋裏插三十根箭, 弓袋裏插一張弓, 盔甲一副, 環刀一口, 都¹⁵²⁾一打裏¹⁵³⁾將到直房¹⁵⁴⁾裏等着我. 其餘的件

라 부르기도 한다. 부두(浮頭)·포도(蒲圖)·불도(佛圖) 등으로도 불린다.

147) 버드나무가지가 관세음보살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미세한 실바람에도 버드나무가 나부끼듯이 미친한 중생의 작은 소원에도 귀를 기우리는 보살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148) 原文의 ‘威信’은 ‘부처가 가진,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묘하고도 불가사의한 힘’을 말함이다.

149) 原文의 ‘人天’은 ‘인간과 신(神)’,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을 뜻하는 불교용어다.

150) 上直: 上班, 當直.

151) 鋪蓋: 被褥臥具. 元·戴善夫《風光好》第一折: 「既然太守去了, 收拾鋪蓋, 我回後堂中歇息去。」(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1461.)

152) 都: 表示對範圍與程度的總括. 可譯作“完全”、“總共”等.

153) 一打裏: 一道, 一起. 同“一搭”、“一搭裏”、“一答兒”、“一答裏”. 元·缺名《朱砂担》第一折: 「我與你做個護臂, 一搭裏做賣買去, 也不虧你。」(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92.)

當¹⁵⁵)們家裏有¹⁵⁶)着, 街上休撒潑皮¹⁵⁷), 好生用心看家着, 如今賊廣¹⁵⁸)。我若出直房來, 看家裏沒你時, 却¹⁵⁹)要打。家中沒甚的事時賞你, 有些事時吃¹⁶⁰)打。我說與你衆伴當們, 常言道: “常防賊心, 莫偷他物。”

【번역】

오늘 번을 서러가니 너는 이부자리를 가져다 놓아라. 너는 동개(筒箇)¹⁶¹)에 화살 서른 대와 활집에 활 한 자루 넣고, 투구와 갑옷 그리고 환도(環刀) 한 자루와 함께 조방(朝房)¹⁶²)에 가져다 놓고 나를 기다려라. 그 나머지는 하인들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고, 밖에 나가 못된 짓을 하질 말고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요즘 도적들이 아주 많다. 내가 일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살펴보고 너희들이 집에 없었다면 내 혼내줄 것이다. 집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상을 줄 것이고, 일이 생기면 매를 맞을 것이다. 내 너희들에게 「常防賊心, 莫偷他物(항

154) 直房: 堂直辦事之處。

155) 伴當: 同伙, 伙計; 隨從, 從僕。《水滸全傳》四四回: 「令李立帶十數個火家去山南邊那裏開店, 令石勇帶十來個伴當去北山那裏開店。」(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34。)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 「伴」字本爲伴侶義, “黨”字也可指同伙、同類。…近代漢語作品中, 可見“伴當”、“伴當”、“伴等”等詞, 有伙伴、同伴和僕從二義, 當系由“伴黨”演變而來。」(吉林教育出版社, 1992年, 頁13。)

156) 有: 等, 候。元·缺名《凍蘇秦》第三折: 「賢士, 你則這裏有者, 待我將的來。」(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271。)

157) 潑皮: 無賴。《元典章·刑部十九》: 「行凶的潑皮매, 一遍撒潑皮呵, 要了罪過, 它的門首泥寫紅粉壁。」(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228。)無賴光棍, 流氓。《金瓶梅詞話》第九回: 「都懼怕西門慶是個刁徒潑皮, 有錢有勢, 誰敢來管。」(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1450。)

158) 廣: 多, 衆。元·高文秀《黑旋風》第一折: 「泰安神州謊子極多, 哨子極廣, 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89。)

159) 却: 就, 便。《警世通言》第二八卷: 「次日早起, 叫將和看着家裏, 却來到針子橋李克用家, 把前項事情告訴了一遍。」(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562。)

160) 吃: 挨, 遭。《三遂平妖傳》第六回: 「我從來愛取笑人, 昨日不合撩撥了這婦人, 吃胡子打了一頓拳頭。」(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44。)

161) 原文「箭袋」에 대한 諺解는 ‘동개’이다. ‘동개(筒箇)’는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도록 만든 물건’이다. 고건(藁鍵)·동아(筒兒)·궁시대(弓矢袋)라고도 한다. 화살집은 시복(矢腹)이라고 하고, 활을 넣는 통은 궁대(弓袋)라고 한다.

162) 原文‘直房’은 조방(朝房)이라고도 하는데 「① 조방(朝房)에 대해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 시각을 기다릴 때 각사(各司) 별로 머물러 대기하는 곳. ② 수직(守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이라는 설명(네이버 백과)을 볼 수 있다.

상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생각을 경계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¹⁶³⁾는 속담이 있음을 알려준다.

第53話 做大帽

你的帽兒那裏做來？徐五家¹⁶⁴⁾的¹⁶⁵⁾。將來我看。這的帽兒也做的中中¹⁶⁶⁾的，頭盔大，檐子小，氈粗，做的鬆了，着了幾遍雨時，都走了樣子¹⁶⁷⁾。徐五的徒弟李大，如今搬去法藏寺西邊混堂¹⁶⁸⁾間壁¹⁶⁹⁾住裏，那廝十分做的好。可知¹⁷⁰⁾那廝使長¹⁷¹⁾的大帽¹⁷²⁾也做裏，休道是街上百姓的。我如今與你一兩銀子，將去

163) 原文의 ‘常防賊心，莫偷他物’一句는 明·范立本이 편찬한 《明心寶鑑》省心篇 第十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추적(秋適)의 抄略本 《明心寶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64) 家：亦作“價”。稱人的名詞詞尾。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六：「專聽着伊家好消息，專等着伊家寶冠霞帔。」(高文達 主編，同上揭書，頁352。)

165) 的：助詞。用于姓名或表示身分的名詞後。《四春園》三 淨白：「咱家茶博士的便是。」(藍立冀 編著，同前揭書，頁62。)

166) 中中：平平常常，一般。《金瓶梅詞話》第六一回：「我前日在宅裏，見那一位郁大姐唱的也中中的，還不如這中二姐唱的好。」(許少峯 編，同前揭書，頁2410。)

167) 走了樣子：走樣。變樣，已非原樣。

168) 混堂：浴池。明·郎瑛《七修類稿》卷十六：「吳浴，甃大石爲池，穹幕以磚，後爲巨釜，令與池通，轆轤引水，穴壁而貯焉。一人專執……池水相吞，遂成沸湯，名曰‘混堂’。」按，史學家一般認爲公共浴堂自宋代始有，稱作“浴堂”。明代時人稱“混堂”。【夾註】人家設溫湯浴室處，燕都多有之，乃蕪水爲湯，非溫泉也。或稱“堂子”，舊本作“湯子”。

169) 間壁：隔壁。

170) 可知：此解“當然”。《寶兒冤》二折【隔尾】：「(張驢兒云)你可怕麼？(卜兒云)可知怕裏。」(卜鍵 主編，同上揭書，頁82。)

171) 使長：主人，東家。明《殺狗記》第二十出：「好漢姓王名老實，西郊外居住，從來伏侍孫宅使長，至今已過二代。」(許少峯 編，同上揭書，頁1696。)

又作“使頭”、“侍長”。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明人徐渭《南詞敘錄》，曲中常用方言字義條：“使長：金元謂主曰使長。”“使長”這個名稱應該是從“使頭”來的。…嚴敦易注：“使頭，就是使長，宋元時奴婢稱號家主做使長。”(上海古籍出版社，1981年，頁11)【夾註】使長者，猶言君長也。元語“那衍”，音“노연”。

172) 大帽：大帽明代冠服制度。相傳爲明太祖見生員在烈日中上班，就賜遮陽帽，形如烟墩帽而有帽檐。大帽是明代男子的重要首服之一，上至天子下至庶人都可以使用。與大帽相配的冒頂，帽珠等則是清代頂戴制度的起源。同時，大帽也是明代男子的重要正裝，接近禮帽性質。注：烟墩帽直檐而頂稍細，上綴金鱗或珠玉帽頂。冬用鶴絨或絨絲、縐、紗制作，夏用馬尾結成，內臣所戴，四川陽城明墓有戴烟墩帽俑出土。(摘自 百度) 【夾註】如本國笠子之制。『南村耕錄』云：胡石塘先生嘗應聘入京，世皇召見於便殿，趨進，不覺笠子欹側。上問曰：“秀

饋¹⁷³⁾李大做定錢¹⁷⁴⁾, 做雲南氈¹⁷⁵⁾大帽一個, 陝西趕來的白駝氈大帽一個。說與他, 套上氈兒, 着我看了的¹⁷⁶⁾之後, 着刺邊兒刺的細勻着。李大的帽兒樣可喜, 不走作¹⁷⁷⁾, 又不怕雨雪。爲甚麼? 那個頭盔好¹⁷⁸⁾煦¹⁷⁹⁾到了時, 纔套上氈兒, 這一個高手的人做的生活¹⁸⁰⁾, 高如師傅。

【번역】

甲某: 모자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乙某: 서오(徐五)¹⁸¹⁾가 만들었습니다.

甲某: 어디 한 번 봅시다. 이 모자는 잘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운두)이 크고, 양태(凉太)는 작고, 모전(毛氈)은 거칠고, 툇툇하게 만들질 못해서, 비를 몇 번 맞으면, 모양이 형편없이 찌그러질

才何學?”對曰:“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學。”上笑曰:“自家笠子尙不端正, 又能平天下也?”此元時戴笠也。今俗唯出外行者及新婚婿郎無職者, 親迎之時必戴大帽。

173) 饋: 此作“給”。

174) 定錢: 購買東西時預付部分定金。《西遊記》六七回:「行者道: 賢弟, 你不知, 我唱個喏就是下了個定錢, 他再不去請別人了。」(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465。)

175) 雲南氈: 【夾註】古梁州, 南境爲徼外夷也。漢置益州郡, 元置路, 今改爲布政司。州縣俱出氈, 細密爲天下最。

176) 了了: 了却, 了結。《新編五代史平話·唐史上》:「梁主泣曰: 事至今日, 怎敢愛寶? 但恐你此行未必了得事也!」(高文達 主編, 同上揭書, 頁496。)

177) 走作: 走樣, 變樣。《醒世恒言》第十二卷:「誰知佛印心冷如冰, 口堅如鐵, 全不見絲毫走作。」(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74。)

178) 好: 正; 正好。

179) 煦: 同“晒”。在陽光下曝曬。

180) 生活: 指手工製品。《元典章·戶部八》:「令各處鋪戶之家, 長現在鐵器生活須管限發賣了畢。」(劉堅 江藍生 主編, 同上揭書, 頁285。)

181) 原文 ‘徐五家の 에 대해서 ‘徐五의 집의서 허가시라’라는 諺解를 볼 수 있다. 여기서의 ‘家’와 ‘의’는 註 161、162)번에서처럼 인칭대사 또는 명사 뒤에서 붙는 助詞이다. 太田辰夫 著, 《中國語歷史文法》:「집미사 ‘家’가 명사 뒤에 오면 그 부류에 속한 신분이나 직업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小孩子家’, ‘姑娘家’가 그것이다. 이러한 ‘家’의 쓰임은 唐代 에 이미 쓰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霓裳禁曲無人解, 暗問梨園弟子家(霓裳羽衣曲이 단절이 되어 아는 이가 없어, 남몰래 梨園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가 그것이고, 清代 의 예로는 ‘況且我是寡婦家(하물며 난 과부입니다)’가 그것이다. (接尾辭)‘家’附于名詞之後, 是表示和它共同的性質, 身分職業等等的。例如, “小孩子家” “姑娘家”。這種‘家’唐代已經用了。霓裳禁曲無人解, 暗問梨園弟子家(于鵠詩)。清代的例子如: 況且我是寡婦家(紅12)」(北京大學出版社, 1987년, 90쪽)

것 같습니다. 徐五의 제자 이대(李大)가, 지금은 법장사(法藏寺) 서쪽 목욕탕이 있는 부근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잘 만듭니다. 그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¹⁸²⁾ 쓰는 大帽¹⁸³⁾는 당연히 만들고, 일반 백성들의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요.

乙某: 내 지금 銀子 한 냥(兩)을 드릴 것이니, 가져다가李大에 계약금으로 주시고, 운남전(雲南氈) 大帽 하나와 섬서(陝西)의 백타전(白駝氈) 大帽 하나를 만들어 주시오. 그에게 모전(毛氈)을 씌우고 나에게 보여 준 다음에 테두리를 세밀하고 고르게 수를 놓아달라고 일러주시오.

甲某:李大의 모자는 모양이 예쁘고, 변형이 되지 않고, 또 비나 눈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甲某: 왜 그렇습니까?

乙某: 모자의 머리 몸통이 잘 말랐을 때 비로소 모전(毛氈)을 씌우기 때문에, 이 고수(高手)가 만든 물건은 스승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第54話 若做非理，必受其殃

個放債¹⁸⁴⁾財主, 小名喚李大舍¹⁸⁵⁾, 開着一座解當庫¹⁸⁶⁾。但是¹⁸⁷⁾直錢物件來當

182) 原文의 '使長'은 자신의 직속上司나 하인이 자신의 주인을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이는 어휘지만, 여기서는 지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183) 原文의 '大帽'는 앞의 주 169)번에서처럼 당시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의 한 이름으로, 등근차양이 있는 모자를 말함이다. 諺解에서는 '큰 갓'으로 풀이하고 있다.

184) 放債: 借錢與人以收取利息。宋·洪邁《容齋五筆·放錢》:「今人出本錢以規利入, 俗語謂之放債, 又名生放。」

185) 大舍: 宋元以來對官僚富家子弟稱「舍」。大舍, 猶言大少爺, 大公子。元·無名氏《劉弘嫁婢》第四折:「老員外喜也, 大舍得了嬰童解元也。」

186) 解當庫: 當舖。也說「解典鋪、解庫」。《剪髮待賓》一白:「他是個巨富的財主, 開着座解當庫。」(劉堅 江藍生 主編, 同上揭書, 頁142。)【夾註】王莽令市官收賤賣貴, 謂如貸錢與民一百個, 每月收利錢三個, 銀一兩, 則每月取利三分之類。後主量其貨物而抽分, 遺下亦收息百三。後人所以効之, 今之解庫, 是其遺意。元時或稱印子鋪, 或稱把解, 人以重物來當, 取錢而去, 在後償還本利, 此即解當庫也。

187) 但是: 但凡, 凡是。明·朱有燾《團圓夢》一折:「如今官府起取操練軍士, 有濟寧衛欠軍若

時，便奪了那物，却¹⁸⁸⁾打死那人，正房¹⁸⁹⁾背後，掘開一個老大¹⁹⁰⁾深淺¹⁹¹⁾的坑，颯¹⁹²⁾在那裏頭。有一日賣布絹的過去，那大舍叫將屋裏去，把那布絹都奪了，也打殺撇¹⁹³⁾在坑裏。又一日一個婦人，將豆子來¹⁹⁴⁾大的明珍珠一百顆來當，又奪了，也打殺撇在那坑裏，用板蓋在上頭。頻頻的這般做歹事，他有兩個渾家¹⁹⁵⁾，小媳婦與大妻商量說：“我男兒¹⁹⁶⁾做這般迷天大罪¹⁹⁷⁾的事，假如明日事發¹⁹⁸⁾起來時，帶累¹⁹⁹⁾一家人都死也，怎的好？”大妻見²⁰⁰⁾那般說，對他男兒說勸：“常言道：若做非理，必受其殃。你做這般不合理的勾當²⁰¹⁾，若官司²⁰²⁾知道時，把咱們不償名²⁰³⁾那甚麼？你再來休做。”說罷，老李聽了惱燥²⁰⁴⁾起來，便要打殺那媳婦，

干，但是少壯的都去。」(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244。)

188) 却：就，便。《警世通言》第二八卷：「次日早起。叫將和看着家裏，却來到針子橋李克用家，把前項事情告訴了一遍。」(許少峯 編，同前揭書，頁2562。)

189) 正房：在住宅的院落中，位置處於正中(坐北朝南)的房子，稱為正房。與廂房相對。

190) 老大：大大的，指體積、面積很大。《水滸全傳》第十二回：「話說林冲打一看時，只見那漢子頭戴一頂范陽氈笠……生得七尺五六身材，面上老大一搭青記，腮邊微露些小赤鬚。」(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13。)

191) 深淺：偏義。指深。《水滸傳》第一回：「看時，石板底下，却是一個萬丈深淺地穴。」

192) 颯：古通“丟”，拋擲。扔，甩。王實甫《西廂記》第二本楔子：「不念法華經，不禮梁皇懺，颯了僧伽帽，袒下我這偏衫。」

193) 撇：丟棄，扔掉。《古今小說》第一卷：「興哥大怒，把書扯得粉碎，撇在河中。」(許少峯 編，同上揭書，頁1439。)

194) 來：用作形容詞尾，猶般，樣。將。元·王實甫《西廂記》第二本三折：「昏昏黑黑海來深，白茫茫陸地來厚，碧油油青天來闊。」(許少峯 編，同上揭書，頁1091。)

195) 渾家：妻子，老婆。《醒世恒言》第十八卷：「這盛澤鎮上有一人姓施名復，渾家喻氏，夫妻兩口，別無男女。」(許少峯 編，同前揭書，頁813。)

196) 男兒：此稱丈夫。

197) 迷天大罪：形容所犯之罪惡極大，罪惡滔天。迷天，彌漫天空。

198) 事發：事情暴露。《水滸全傳》四六回：「哥哥，你也這般搭纏，倘或入城事發拿住，如何脫身？」(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032。)

199) 帶累：連累，牽連。《水滸全傳》102回：「不幹我每的事，大爺立等回話，去遲了，須帶累我每吃打。」(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239。)

200) 見：聽。元·李文尉《燕青博魚》三折：「這幾年我不曾見你說有甚麼兄弟，今日可可的就認的是你兄弟。」(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544。)

201) 勾當：事情。也作“穀當”。《水滸全傳》十六回：「你這村鳥理會的甚麼！到來只顧吃嘴，全不曉得路途上的勾當艱難，多少好漢被蒙汗藥麻翻了！」

202) 官司：官府，衙門。

203) 償命：因致人死而抵命。元·蕭德祥《殺狗勸夫》第三折：「休道是哥哥殺死一個，便殺了十個，怕沒銀子使，要我替你償命。」(許少峯 編，同前揭書，頁207。)

204) 惱燥：同“惱躁”。發怒，生氣。元·缺名《劉弘嫁婢》第一折：「姑夫家來惱燥，我道為甚麼來，沒正經！」(許少峯 編，同前揭書，頁1345。)

那媳婦便走了。走到官司告了，官人們引着幾個皂隸²⁰⁵⁾，將棍繩到那家裏，將老李拿着背綁²⁰⁶⁾了，家後坑裏都搜出三四十個血漚漚的尸首和那珠子、布絹。將老李打了一百七²⁰⁷⁾，木椿²⁰⁸⁾上刷²⁰⁹⁾了。一個官人即便²¹⁰⁾娶了那媳婦。那媳婦道：“妻賢夫省事，官清民自安。”

【번역】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되어, 별명이李大舍라고 하는 자가 전당포를 열었다. 저당하러 가져오는 모든 값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빼앗고 죽여 버리고, 본채 뒤에 크고 깊은 구덩이를 파고서 그곳에 처넣어버렸다. 어느 날 옷감을 파는 이가 지나가자, 이 大舍라는 작자는 집안으로 불러들여 옷감을 다 빼앗고 그를 때려죽인 다음에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또 하루는 한 여인이 콩알만 한 큰 진주 백 개를 저당하려고 오니, 또 다시 빼앗고 죽여서 구덩이에 처넣은 다음 널판자로 위를 덮어버렸다. 이런 나쁜 짓을 자주 하였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小室이 正室에게 「우리 지아비가 이렇듯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내일이라도 폭로가 되면 온 집안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죽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을 한다. 正室 그 말을 듣고는 사내에게 「옛말에 ‘若做非理, 必受其殃(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다가 관아에서 알아차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라고 타일렀다. 말이 끝나자 李씨는 화를 내며

205) 皂隸：差役，衙役。

206) 背綁：將兩手綁在背後。也作“背剪”。

207) 一百七：【夾註】『南村輟耕錄』云：凡七下至五十七下用笞，六十七下至一百七下用杖。而數用七者，建元以前，皆用成數。大德中，刑部尙書王約上言，國朝用刑寬恕，笞杖十減其三，故笞一十減爲七。今之杖一百者，宜止九十七，而不當反加十也。議者憚於變更，其事遂寢。

208) 木椿：【夾註】其制，於刑法場，植一大柱，縛着罪人於其上，劊子用法刀剔其肉以喂狗，而只留其骨，極其慘酷，方施大辟，卽古之梟刑也。劊子，獄吏刑罪人者也。

209) 刷：(1) 把骨肉分開，剔。(2) 一種酷刑，把犯人碎割致死，卽凌遲。

210) 就便：隨即，趁便。《水滸全傳》十四回：「我看那廝不是良善君子，以定是醉了，就便着我們把索子縛縛了。」(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600。)

아내를 때려죽이려 했다. 부인은 도망치더니 관아로 들어가 사실을 고하였다. 관리들은 군졸들을 앞세우고 곤봉과 포승줄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李가를 잡아 결박하였다. 집 뒤의 구덩이에서 유혈이 낭자한 삼사구의 시체와 진주 그리고 옷감을 찾아냈다. 李가를 곤장 백 일곱 대를 치고, 큰 기둥에 매달아 놓고 살점을 도려내어 죽였다. 한 관리는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부인은 「妻賢夫省事, 官清民自安(아내가 어질면 지아비가 편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편하다)」라고 말하였다.

第55話 天氣冷殺人

咳, 今日天氣冷殺人, 腮頰凍的刺刺的疼, 街上泥凍的只²¹¹⁾是²¹²⁾一剗²¹³⁾狼牙也似, 馬們怎麼當的²¹⁴⁾? 鐵匠家裏去打一對馬脚匙²¹⁵⁾來釘上着, 我明日通州接尙書去。將交床²¹⁶⁾來, 我且外前坐的。請官人²¹⁷⁾屋裏吃飯。做甚麼飯? 乾飯也做着裏, 稀粥也熬着裏。再有甚麼就飯²¹⁸⁾的? 乾羊脚子煮着裏。好, 好, 飯湯休着冷了, 等一會兒吃。如今便入裏頭去時, 凍面皮都打破了, 不中²¹⁹⁾。你把那鑊壺

211) 只: 就。《五燈會元》第三卷: 「(麻谷寶徹禪師)師又問: ‘婆住在甚處?’ 婆曰: ‘只在這裏。’(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98。)

212) 是: 與“似”通用。關漢卿《玉鏡臺》二【牧羊關】: 「指頭是三節兒瓊瑤, 指甲似十顆水晶。」

213) 一剗: ① 一片, 一色。元·王曄《桃花女》第四折: 「到這東南角上打一望, 只見茫茫蕩蕩, 一剗都是荊榛草莽。」② 一概, 全是。元·秦簡夫《東堂老》第二折: 「那孟嘗君是個公子, 公孫弘是個名卿, 他兩個在朝中十分恭敬, 但門下都一剗群英。」(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90。)按, 此作“一片, 一色”解。

214) 當的; 同“當得”。經受得住, 承受得。《二刻拍案驚奇》第二十卷: 「(巢大郎)怎當得妻妾兩個, 推班出色, 遞換來憂, 不勾幾時, 把所得之物乾淨弄完。」(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395。)

215) 馬脚匙: 未詳。疑是“蹄釘”。

216) 交床: 同“交椅”。一種輕便、帶靠背、可折疊的圈椅。亦稱“胡床”、“交椅”、“繩床”。

217) 官人: ① 妻子稱丈夫。《古今小說》二十卷: 「奴一身嫁與官人, 只得同受甘苦, 如今去做官, 便是路途險難, 只得前去。」② 奴僕對男主人的尊稱。《水滸全傳》七回: 「只見女使錦兒慌慌急急, 紅了臉, 在牆缺邊叫道: ‘休要坐地, 娘子在廟中和人合口。’(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423。)

218) 就飯: 下飯。如: 炒雞蛋就飯。

219) 不中: 不行, 不好。

瓶²²⁰)汕²²¹)의乾淨着, 控²²²)一控, 且²²³)旋²²⁴)將酒來吃一盞. 這酒忤禿²²⁵)怎麼吃? 將去再吊一吊.

【번역】

官人: 어휴! 오늘 날씨가 지독하게 춥고, 땀이 얼어 갈라지듯이 아프군! 진흙이 얼어서 길은 온통²²⁶) 이리의 이빨과 같아서, 말들은 어찌 견뎌낼 수 있겠느냐? 대장장이 집에 가서 대갈²²⁷)을 만들어다 편자에 박

- 220) 鐵壺瓶: 鉛與錫的合金稱鐵, 鐵並不是一種元素。『錫器, 民間也稱鐵器, 素有“盛水水清恬、溫酒酒甘醇、貯茶色不變、插花長久”的特性, 在民間廣泛應用, 如錫茶罐、錫茶壺、錫酒壺、和錫香爐等, 都曾經是女兒嫁妝中的一個重要器物。』(摘自 百度, 浙江攝影 陳明仙-留住手藝)
- 221) 汕: 冲刷, 洗滌. 借作‘刷’。《兒女英雄傳》第三十五回:「在撒了泡尿, 聽見, 忙的我事也沒完, 提上褲子, 在那涼水盆汕了汕手就跑了來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31.)
- 222) 控: 把盛器倒過來將液體流盡。(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056.)
- 223) 且: 先。《紅樓夢》第五十回:「外頭冷得很, 你且吃杯熱酒再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18.)
- 224) 旋: 溫酒器。同“鏃”。《水滸全傳》二八回:「武松把那旋酒來一飲而盡, 把肉和麵都吃盡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551.) 按, “旋”此作“用溫酒器溫酒”。
- 225) 忤禿: 應是“兀禿”。① 兀禿, 不冷不熱。《元曲釋詞》卷二:「元·武漢臣《生金閣》第三折:“我如今可釀些不冷不熱, 兀兀禿禿的酒與他吃。”兀兀禿禿, 卽“兀禿”的重言, 不冷不熱之意, 今北京、湖北、昆明等地仍有此俗語。兀禿, 本爲“溫噉”的音轉。“溫噉”一詞, 見於唐詩者有: 元稹《酬獨孤二十六歸通州》詩云:“寧受寒切烈, 不受陽溫噉。”…溫噉, 又作溫噉、溫〇、溫晷、溫吞等。元·陶宗儀《輟耕錄》卷八:“南人方言曰溫噉者, 乃微煖也。”清·翟灝《通俗編》:“溫噉與溫晷、溫〇義同, 音亦相近。”後世演變爲“兀禿”。(顧學楨、王學奇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年, 頁601) ② 兀禿, 不爽利, 不乾脆。(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按, 此作“不冷不熱”之意。
- 226) 原文의 ‘一划’에 대한 諺解는 ‘하얗다(한결같이)’이다. ‘한결같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처음이나 끝이 변함없이’의 의미를 가진다는 우리말 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앞의 註 210)번에서처럼 ‘一划’은 ‘一片, 一色’과 ‘一概, 全是’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一片, 一色’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街上泥凍的只是一划狼牙也似’一句를 ‘街上的泥土凍得就像一片狼牙似的(一樣)’과 같은 現代漢語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 227) 原文의 ‘馬脚匙’一詞가 무엇을 말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갈’이라는 諺解의 설명을 보고 ‘말굽 따위에 편자를 신기는 데 박는 장’임을 알 수가 있다. 改修본인 《朴通事新釋》에서는 ‘馬脚匙’ 대신에 ‘馬釘子’로 改修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本文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話者는 말을 타고 한겨울 진흙이 얼어붙은 빙판길을 가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장을 편자에 박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百度 百科’의 ‘蹄鐵條’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빙판길을 가기 위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장(대갈)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現用馬蹄鐵按用途可分爲: ① 普通蹄鐵. 應用最多的一種, 前鐵頭部設鐵唇, 有防止蹄鐵脫落的作用. …

아아겠다. 난 내 일 통주(通州)로 상서(尙書)를 맞으러 가야한다. 교의(交椅)²²⁸를 내 오너라, 내 잠시 밖에서 앉아 있어야겠다!

下人: 나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지를 드시지요.

官人: 무슨 밥을 지었는가?

下人: 밥도 지었고, 죽도 쑤었습니다.

官人: 반찬은 무엇인가?

下人: 말린 양다리를 삶았습니다.

官人: 잘했네. 음식이 식지 않게 하게나, 내 잠시 후에 먹을 것이네. 지금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뽕뽕 언 뺨이 터져버려 좋지가 않아. 자네는 그 납호병(鑲壺瓶)²²⁹을 깨끗하게 씻고, 뒤집어 물기를 없앤 다음, 술을 담아 따뜻하게 데워 오게나, 내 한 잔 해야겠네! 술이 미지근해서 어찌 마시겠는가?²³⁰ 가져다가 다시 데워 오게나.²³¹

② 冰上蹄鐵。具有防滑性能。兩鐵枝的接地面各有兩枚防滑釘，稱鐵臍：機制的在釘尖磨鈍時可更換，手制的只能重新裝置有鐵臍的蹄鐵。③ 變形蹄鐵。又稱矯形蹄鐵，… ④ 特种蹄鐵。…此外，還有如賽馬專用的薄而輕快的賽馬蹄鐵等。(蹄鐵 - 摘自百度)』

228) 原文의 '交床'은 '交椅'라고도 하는데, 다리가 교차(交叉)되어 접을 수 있게 된 의자(椅子)를 말함이다. '호상(胡床)'이라고도 한다.

229) '鑲壺瓶'은 '백랍 주전자'이다. '백랍'은 납과 주석을 섞은 합금이다. 다음은 《연기(燕記) 음식(飮食) - 흥대옹 지음, 이웅재 해설》에서 볼 수 있는 '鑲壺瓶'에 관한 설명이다: 『술에는 홍소주(紅燒酒) · 청주(淸酒) · 황주(黃酒)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황주라는 것은 탁주다. 술잔은 아주 작아서 겨우 몇 손갈이 될 정도이며 술을 데우는 납기(鑲器: 백철그릇) 역시 겨우 한 잔이 들어 갈 정도였다. 이것은 둥글고 허리가 가는데 그 허리 있는 데서 막혀 그 위쪽에 술을 붓고 아래로 화기를 통하면 금방 데워진다. (네이버 검색 - 백철그릇)』

230) 原文의 '忤忤'는 앞의 註 222)번의 설명처럼 '兀忤'의 誤寫로 보았다. '兀忤'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의미를 가진다. '忤忤'에 대한 朴通事諺解는 '들뜨쥬군하다'이다. '들뜨쥬군하다'에 대해 《李朝語辭典》(劉昌惇, 연세대학출판사)에는 '밋밋하다'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231) 原文 '將去再吊一吊'의 諺解는 '가져가 다시 드리오라'이다.

＜ 參考文獻 ＞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錢南揚 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____，《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王鎔、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王鎔，《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____，《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____，《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____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劉昌倬，《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藍立萸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著書類

呂叔湘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著，江藍生、白維國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____，植田均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 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 日·青山定雄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 李泰洙,《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 장숙영 옮김,《번역박통사 (상) 주석》,한국문화사,2008年。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 慎鐸權,〈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48輯,2006年。
-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第37卷,2006年。
- 최재영·정운철,〈朴通事諺解譯註(2)〉,《中國語文論譯叢刊》18輯,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朴通事諺解譯註(3)〉,《中國研究》第40卷,2007年。
-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4)〉,《中國研究》第42卷,2008年。
- 王霞·崔宰榮,〈朴通事諺解譯註(5)〉,《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2008年。
- 拙稿,〈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中國語文論叢》第36輯,2008年。

- 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叢刊》第22輯, 2008年.
- 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年.
- 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年.
- 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年.
- 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
- 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
- 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叢叢》27輯, 2010.
- 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
- 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
- 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 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年.
- 맹주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 맹주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年.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万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个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

本子，韓國學者稱之爲《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爲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爲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爲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3. 31.	2014. 4. 20.	2014. 5. 9.	2014. 5. 24.	2014. 5. 31.